

## 제23기 해외역사문화탐방 보고서

- 대만 / 타이페이-

일시: 2019.10.30 ~ 11.02 ( 3박4일)

해외 역사 문화탐방으로 지정된 곳은 대만이다. 대만은 대한민국의 3분의 1 크기인 경상도와 제주도를 합친 면적인 작은 섬나라이다. 모양은 마치 살이 빠진 고구마 같이 생겼다. 여행 첫날 설레이는 마음으로 잠을 설쳤고 새벽 3시 59분 대전발 인천행 공항버스에 몸을 실었다. 오전 6시 30분에 인천공항 1터미널에 도착해서 보니 벌써 와 있는 학우님들이 계셨다. 서로 다른 크기의 캐리어를 끌고 얼굴에는 피곤함보다 즐겁고 기대되는 표정으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면서 여행 일정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다. 처음 만난 분들인데도 서울사이버대학교라는 소속감이 있어서 그런지 서로서로 챙겨주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다. 07시에 다같이 모여서 단체사진을 찍고 출국장으로 향하면서 아! 대만 여행이 이제 시작이구나 하는 실감이 났다.

-제1일차 10/30 (수)-

10시 인천 국제 공항 출발을 타이페이 국제공항에 대만 시간으로 11시 30분에 도착을 출입국 심사호, 화물수령 및 가이드 미팅을 하고 시내로 이동하여 현지식으로 점심을 먹었다. 처음일정으로 충렬사를 방문하여 군인들의 교대의식을 참관하였다. 대만은 옛날 선조들이 나라를 지키려는 애국심을 기리기 위해 매일 군인들이 교대의식을 한다고 한다. 마치 우리나라의 현충사를 다녀오느낌이었다. 국립고궁 박물관으로 이동하여 유물을 관람하고 특징적인 유물에 대해서는 현지 가이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었다. 모든 유물들이 정교하고 아름다웠지만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은 서태후의 옥으로 만든 8쪽짜리 병풍이었다. 나무의 조각하나하나에 장인의 손길이 스며들어 있었고 옥의 색깔이 위에서 아래로 이어지며 위에서부터(서태후의 시선이 위에 있음) 화려함이 점점 아래로 갈수록 옥이 화려함이 덜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서태후의 권력과 화려함이 돋보였다. 저녁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이동하여 룸메이트랑 서로 짐을 풀면서 하루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제2일차 10/31일 (목)-

호텔 조식 후 로비에서 가이드 미팅후 전용차량에 탑승을 하였다. 아침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더니 산속에 큰마을 황금산성 관광을 할때는 운동화가 물 속에 잠겨 있었다. 아마 저녁때쯤이면 내발이 뚱뚱부어있을 것 같고 이리다 관광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면서 우산과 비옷을 쓰고 관광을 하였다. 비가 너무 와서 내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센과 치이로 행방불명”에 모태가 되었던 찻집은 못 찾아서 아쉬움이 컸다. 점심을 먹은후 소원천등날리기를 하였다. 비가와서 천등을 날릴수 있을까 걱정을 하였는데 다행이도 내 몸통보다 커다란 천등에다 나의 가족 건강과 울아들들 취업성공하라고 소원등에 글을 적어서 4인1개로 서로 소원이 꼭 이뤄지기를 기원하면서 천등을 하늘 높이 올려 보냈다. 징안차오 흔들다리 체험후 타이페이로 이동후 저녁을 먹고 호텔 투숙후 휴식을 취하려고 했는데 룸메이트와 그사이 친하게 된 학우님들과 편의점에서 뒷풀이를 가지고 호텔에 1시에 들어와서 2일차 일정을 마무리 하였다.



-제3일차 11/1일 (금)-

오전 8시에 호텔로비에서 출발하여 금용천 해수온천 체험을 시작하였다. 온천 물에 소금기가 있어서 그런지 피부가 따끔따끔하였고 개인적으로 나는 손목과 무릎이 묵직한 느낌이 들었다. 아마 그 부위가 안좋아서 그런 것 같다. 닥터피쉬가 내 발을 간질거릴때는 느낌이 이상하면서도 닥터 피쉬에게 좋은일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발 마사지 체험을 할때는 그동안의 피곤이 확 풀리는 기분이 들었다. 옆의 학우님들은 시원하다고 하는데 나만 아프다고 하니 발마사지사사가 나보고 안 건강이라고 해서 좀 더 내 몸에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에류의 자연경관(해상공원)을 걸으면서 심상암의 형성과정은 하나하나가 마치 표고버섯같이 생겨서 무척이나 신기하고 바닥은 황토색 밀가루를 밟고 가는 느낌이었다. 오늘의 조별 미션은 6명이 한팀이 되어서 먹거리 탐방을 하고 팀 사진을 찍어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길찾기에 도움이 되는 구글지도와 구글번역기로 손짓 발짓 해가면서 맛집 탐방을 하는 미션 수행은 어려우면서도 팀원이 푹푹 뭉치는 계기가 되면서 먼 훗날 소록 소록 생각이 날것 같다. 마지막으로 대만의 유명한 101타워 전망대를 관람하고 호텔에 밤 10시에 도착을 하였다. 오늘이 3박4일 일정중에 제일 힘들고 즐거운 하루였던 것 같다.



-제4일차 11/2 (토)-

즐거운 시간이 다 가고 아쉬운 마지막날 호텔에서 아침식사를 마치고 오전 11시에 호텔에서 출발하여 타이페이 국제 공항을 출발하여 인천국제 공항에 오후 5시30분경에 도착을 하였다. 헤어짐의 서운함속에 마지막 단체 사진을 찍고 가족이 기다리는 집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였다.

- 대만 역사 탐방을 다녀와서-

고등학교 수학여행 이후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서울사이버 대학교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3박4일의 일정은 처음에는 두렵고 시간이 지날수록 설레이면서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나이 50이 훌쩍 넘어서 수학여행 같은 느낌이 드는 여행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먼 훗날 아름답고 즐겁고 행복하고 글로써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기회를 주신 우리 학교 서울사이버대학교에 감사합니다.